

사립유치원 10곳 중 7곳, 내년 원생모집 일정 ‘불투명’

‘처음학교로’ 오픈… 참여율 저조

전국 국공립·사립 참여율 68.1% 국공립 99.9%... 사립 31% 그쳐 사립 최다 경기... 17.97% 불과 부산·대전·충북 10% 채 안돼

전국 사립유치원 10명 중 3곳이 정부의 유치원 지원·추천·등록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유치원 10곳 중 7곳의 내년 원생 모집 일정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여 유치원 입학·보육 대란이 벌어질지 우려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31일 자정까지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등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국공립유치원 8860곳 중 6037개 유치원이 등록을 완료해 참여율 68.1%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국공립유치원(4772곳, 99.9%) 대다수는 등록했지만 사립유치원은 1265곳(30.9%)이 등록하는데 그쳐 사립유치원 10곳 중 7곳은 처음학교로 참여가 불투명하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11월~12월 중



지난 31일 오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립유치원 정문에 ‘학부모 긴급회의’를 알리는 안내지가 붙어 있다. 이 유치원은 감사 결과 논란이 일자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폐원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등록이 가능해 추가 등록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처음학교로 등록 기일을 지난 31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처음학교로 참여 의사가 있는 사립유치원은 기한을 지켰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되는 사립유치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를 정부 재정 지원사업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처음학교로는 사립유치원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지원과 추천 등록일에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 해소 위해 지난해 첫 도입했으나,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은 전년(2.7%, 115곳)과 비교해 약 12배 증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따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최다 경기도 17.97%에 불과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지

역별 편차가 크다. 21개 사립유치원이 있는 제주도와 세종(3곳)의 경우 전체가 등록했고, 서울은 전체 633개 사립유치원 중 519곳(81.99%)이, 충남은 135곳 중 126곳(93.33%)이 등록해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106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191곳(17.97%)만 등록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고, 249개 사립유치원이 있는 인천(34.94%)도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광주(59.88%)가 비교적 높았지만,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산(300곳)은 15곳(5.00%)만 참여했고, 전남(25.45%), 강원(24.30%), 경남(15.81%), 전북(12.42%), 대구(11.72%), 울산(11.30%), 경북(10.08%), 대전(6.59%), 충북(5.88%) 등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유치원 모집중지·폐원 19곳

31일 오후 17시30분을 기준으로 모집중지·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9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유치원 1곳이 모집중지됐고,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은 18곳(교육청 통보 6곳, 학부모 통보 12곳)이다.

모집중지나 폐원을 계획한 유치원이 소수에 그쳤지만, 해당 지역 유치원생 수용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치원 5곳이 폐원을 통보한 충남의 경우 인근 공·사립 유치원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해 일부 원아의 유치원 수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병설 유치원 확충하기로 했다.

회계 비리도 실명이 공개된 충북의 한 사립유치원은 31일 학부모들에게 원장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폐원을 통보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인근 공·사립 유치원에 분산 유치하고, 인근 공립학교 유류교실 이용을 검토 중이다.

사립유치원 3곳이 폐원 예정인 전북의 경우 인근 유치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고, 모집중지 1곳, 폐원 3곳이 통보된 경기도 역시 유치원생 수용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처음학교로 입학희망 3순위까지 지원

1일 학부모 서비스를 개통하는 처음학교로는 6일까지 특수교육대상자와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을 대상으로 우선모집을 하고, 21일~26일까지 일반 원생 모집이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인사담당자 63% “말끝 흐리는 버릇 최악”

사람인, 인사담당자 623명 대상 설문

하반기 기업 채용의 면접 시즌을 앞둔 가운데,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면접에서 지원자의 본인도 모르는 버릇을 보고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사람이인 기업 623곳을 대상으로 ‘면접에서 지원자의 버릇에 대해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2.8%가 ‘감점을 준다’고 응답했다.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버릇(복수응답)

1위는 ▲말끝 흐리기(47.6%)였고, ▲시선 회피(39.1%)도 많았다. 이어 ▲코웃음 등 피식 웃기(28.9%) ▲은어 및 비속어 사용(25.8%) ▲잡은 한숨 쉬기(24.6%) ▲다리 떨기(22.5%) ▲허공 보거나 두리번거리기(19.9%) ▲구부정한 자세(18.2%)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이들 중 78%는 지원자의 버릇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의 버릇이 합격에 당락을 미치는 비율은 평균 43%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중앙대 5일 100주년 기념관서 ‘접경영화제’ 개최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5일 오후 5시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310관) B501호에서 접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대 접경인문학 연구단(단장 차용구)이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의와 참

교양문화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인 ‘올리브 올림(ALL LIVE OLIVE)’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 관객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건국대 구수민 교수, 에메랄드 출판사 최우수 논문상

건국대학교는 예술디자인대학 구수민 교수(사진)가 최근 에메랄드 출판사(Emerald Publishing)에서 출간하는 ‘Research Journal of Textile and Apparel’에 게재된 논문 중 2018 최우수 논문상(2018 Outstanding Paper Award)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구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시대 지속가능한 의복 디자인 및 제작 방법을 재발견하고,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접목해 우리 선조의 우수한 패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오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2019학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전공은 호텔관광대학원의 ▲호텔외식MBA ▲관광레저항공MBA와, 문화

창조대학원의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등 2개 대학원 6개 모집단위다. /한용수 기자

시사 이슈... 전공 적합성 질문 준비

인문계열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② 서울대 미술면접

고난이도 ‘제시문형 면접’은 기출 토대로 문제·내용 파악

대학 입시 특히 수시 입시에서 면접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서울대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서는 면접성적이 최종 합격을 결정한다.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2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 50%와 면접평가 50%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이다.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도 면접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서류형’ 면접을 실시하는 반면 일반전형에서는 ‘제시문형’ 면접을 진행한다. 지원자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토대로 진행되는 서류형 면접의 경우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인문계열의

자연계열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경우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질문도 자주 나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제, 외국인난민과 같은 이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반면 자연계열의 경우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묻는 질문이 자주 등장하므로 자신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면접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일반전형에서는 제시문형 면접을 실시한다. 제시문형의 경우 전년도 기출문제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계열의 경우 대개 3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된 문제를 출제하는데 제시문에 영어 및 한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문학작품, 도표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므로 제시문에 대한 독해 능력과 논리적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창의적 사고력까지 보여줄 수 있

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과 과학 문제가 출제된다.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반을 둔 문제가 출제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의 개념 학습과 주관식 문제 풀이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의과대학, 치의학과, 수의과대학과 같은 의학계열의 경우 지역균형에서는 서류형 면접을, 일반전형에서는 MMI 면접을 실시한다. MMI형 면접은 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의 면접을 실시하는 형태로 대개는 지원자가 면접실을 이동하면서 면접실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면접을 치른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총 5회의 면접을 실시하는데 4번의 상황면접과 1번의 서류형면접으로 구성된다. 상황면접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는 제시문을 주고 상황에 대한 논리적 분석능력과 합리적 대응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의학이나 자연과학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인문학이나 사회과학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다. 4번의 상황면접에서 각 10분 내외, 서류형면접에서 20분 내외가 소요되므로 총 60분 내외에 걸쳐 면접이 진행된다.

위메프, 신입 MD 공채... 19일까지 접수

올 들어 매 분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 위메프가 4분기 MD 직군 신입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입 및 관련 경력 1년 미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일~19일이다. 위메프 채용공고 페이지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위메프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신입 MD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의 입사 예정일은 12월 10일이다. 약 3개월간 직무 교육 및 실무 멘토링 과정을 거쳐 배치부서가 결정된다.

위메프 MD는 영업(상품 소싱) 및 기획, 판매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좋은 상품을 입점시키기 위해 파트너사에 직접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콜 연계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위메프 관계자는 “MD는 영업을 기반



으로 하는 직무로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열정 있는 지원자를 찾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기업 중 가장 먼저 포괄 임금을 폐지한 위메프는 직원들의 워라벨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